

보성녹차 미국에 첫 수출

'보성녹차'가 미국에 처음 수출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4월 14일 보성군 보성읍 대아리 보성농협 녹차 가공공장에서 미국 뉴욕 수출 출정식을 가졌다. 첫 수출물량은 현미녹차, 녹차 티백, 엽차(葉茶) 등 3종류 60상자로 가격은 500만 원 어치다. 지난해 중국 현지에 보성녹차 직판장을 개설한데 이어 교민이 많은 미주 대륙에 본격적인 수출길을 연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농협측은 현지 반응이 좋을 경우 수출 물량을 늘리는 한편 유럽과 남미 국가 등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보성농협은 또 미주 공략에 이어 유럽과 남미 국가 등에도 수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3년 문을 연 보성농협 가공공장은 연간 생엽(生葉) 300톤을 가공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3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보성지역은 750여 농가에서 646ha의 녹차를 재배, 전국 생산량의 42%인 996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녹차관련 연간 소득은 2천 2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차문화회, 청소년 차문화전

한국차문화회(회장 이기래)는 5월 1일 경기도 광주시 조전관외 박물관에서 '제8회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개최하고 있는 이 행사에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차 만들기 체험과 무료 차 시음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02)701-0475

우주항공축제기간 제다체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고흥지부는 고흥군 우주항공축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고흥공설운동장 축제행사장에서 '전통 차문화 체험 및 고흥특산차 시음회' 상설체험장을 운영한다.

우주항공축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 차문화와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차와 연잎차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차 무료 시음회와 제다체험 등이 마련된다. (061)830-5303

중국공예대사 강연 29일로

자유명차와 도서출판 바나리가 4월 12일 개최하기로 했던 '중국공예미술대사 초청 강연 및 시연회'가 주최측의 사정으로 4월 29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장소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 명동성당 문화관으로 변경됐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내용은 도서출판 바나리도 문의. (031)912-5634

차와 시가 만난 까닭은?



조선 후기 화가 유숙의 '벽오사'. 벽오사라는 모임을 그린 것으로, 모임 한편에서 동자가 차를 달이고 있다. 당시 시문(詩文)을 즐기는 자리에는 차가 필수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차자리 정취·이상 담겨 문화사 연구에 도움 불가에선 수행의 경지 드러내는 방편 되기도

한편의 다시(茶詩)는 차를 마시며 느끼는 정취나 차 생활의 즐거움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차인들이 다시를 쓰고 또 선현들의 다시를 애송하는 이유다.

다시란 좁은 의미로는 '차'를 주제로 읊은 시를 말한다. 이 때의 '茶'는 차의 재배와 제다, 음다(飲茶),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아우른다. 불가(佛敎)의 스님들이나 사대부, 문인들 사이에서 주로 지어진 다시는 차를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 차자리의 정취 등 차 생활을 노래하고 차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理想)을 담고 있어 차 문화사 연구에 큰 자료가 된다.

이러한 다시는 그 소재나 주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차를 심고 가꾸는 일이나 차를 만드는 것, 우려 마시는 등의 차 생활 자체를 노래한 시다. 조선 후기 범해각안 스님은 "술에서 떼쳐내어/ 밑실에서 말린다/ 모나거나 둥근 차 찍어내고/ 죽순껍질로 포장하여/ 바깥 바람 들지 않게 간수하니"라고 초의 스님의 제다법을 노래했다. 또한 "다관은 오른쪽에 두고/ 다원은 왼쪽에 있네"처럼 당시의 제다법을 보여주는 시도 남겼다.

두 번째는 차를 선사하며 주고받은 시가(詩歌)다. 차와 시로써 깊은 교유를 맺은 이

들로는 경호 선사와 이재현,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 혜장선사와 다산 정약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차를 보내준 사람에게 "북쪽 동산에 새로 만든 차를/ 동쪽 숲에 사는 스님에게 보냈도다/ 한가로이 차 달일 날 미리 알고/ 찬 얼음 깨고 샘물을 찾는다"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세 번째는 차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은 시다. 스님들이 지은 다시 중 상당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려 말 나온 선사자가 "밥 먹고 갈증나면 차 마시고 곤한 잠 잔다"고 읊은 시에서 보듯이 차가 단순한 접점을 좇는 음료만이 아니라 수행의 방편으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스님들의 다시를 통해 선맥(禪脈)을 밝혀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대 고승의 다시>를 펴낸 무산 스님은 다시를 통해 차를 마시며 선수행을 하는 '다담선(茶湛禪)'의 유래와 실체를 짚어보고 있다. 고승들의 문집에서 차에 관한 시와 산문을 찾아내 정리한 <한국의 불교 다시>를 펴낸 혜봉 스님은 79명 스님들의 다시와 차 관련 산문을 통해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차맥이 얼얼히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턴 기자 참조)

이밖에 우리나라의 다시 연구서로는 <한국의 다시감상>(김명배 지음, 대광문화사, 1994) <한국 및 중국의 명다시감평>(정상구 지음, 세종출판사, 1995년) <한국다시작가론>(전병식 지음, 1996년) <한국의 다시>(김상현 지음, 민족사, 1997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인터뷰 '한국의 불교 다시' 펴낸 혜봉 스님

"일반인들 문집·시집 정리 집대성 할 것"

혜봉 스님(이전 지족암 주지·사진은 최근 신라시대부터 광복 후에 이르기까지 79명의 스님들의 다시(茶詩) 479편 513수와 차 관련 산문 50여편, 불교 다게(茶閣) 28편을 담은 <한국의 불교 다시>를 펴냈다.

▲출간 동기는?
-그동안 신문이나 잡지, 수필집 등에 몇몇 유명한 다시는 거듭 소개되지만 그 소재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불교 다시라도 제대로 집대성해보자는 뜻에서 책으로 엮게 됐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고승들의 문집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 한 스님이 쓴 다시는 몇 편이든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다 보니 국역되지 않은 시를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시를 정리하며 느낀 점은?
-그동안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맥(茶脈)이 초의·범해 선사 이후 단절됐다고 보았다. 하지만 금명보정 스님이 72편 79수에 이르는 다시를 남긴 것을 비롯해 해담 차의, 용성진종 스님 등이 다시와 다화, 다



론 등을 지음으로써 일제시대에도 우리의 다맥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허 휴정 스님으로부터 초의 스님, 응송 스님을 거쳐 면면히 이어져 온 해남 대흥사의 다맥을 짚어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다.

▲앞으로 연구 분야는?
-일반인들의 문집과 시집을 정리해 다시와 차 관련 문헌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차 문화 연구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선시대 ①



조선의 건국은 정치 경제 뿐 아니라 문화에까지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상대 교역국이 주로 명나라가 때문에 차도 고려의 연고차 형태에서 차츰 산차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나 다종을 거의 이어받아 사헌부에서 다시(茶時)를 행하는 제도도 있었고, 다모(茶母)라는 직책이 생겼다. 한편 방만했던 사찰과 승려들에 대한 정비와 개혁이 서서히 이루어진다. 궁내의 제례는 물론 사가(私家)에서도 제사 때 차를 올렸고 왕의 묘당(廟堂)에는 술도 함께 쓰도록 했다. 12, 13세기를 정점으로 극에 달했던 정

- ④ 해민국(惠民局)의 의녀(醫女) 중에 다모의 일을 보게 했다.
- ⑤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로 제사에 차 대신 술을 쓰는 것을 금했다.
- ⑥ 12월 1일 이지(李濟)는 간원(諫院)의 탄핵을 당해서 그에 대한 판결을 다시(茶時)에서 결정했다.
- ⑦ 태조대왕과 왕후의 제사에만 술을 쓰고 나머지 제례에는 차만 쓰던 것을 모든 왕과 비의 제례에 술을 쓰도록 했다.
- ⑧ 중국 사신 해수가 암화분색(暗花粉色) 다종(茶鐘)과 다병을 바쳤다.
- ⑨ 조정의 중론에 의해 정·부사

명과 교역하며 '연고차'에서 '신차'로 변화

자의 기법이 고려 말의 혼란기를 겪으며 퇴보하여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다기(茶器)들이 생산된다. 중국은 명(明)조여서 원의 제도를 그대로 두었고, 특기할 일은 태조가 용봉차 제조를 금지한 후 다엽(茶葉)을 산차로 만들게 한 것이다.

- ① 태종 원년 2년 계묘일에 사신을 맞아 다례를 행했다.
- ② 정국인(1401~1481): 조선의 문신으로 호는 불우현(不憂軒), 다각(茶角), 다현(茶軒)이라 했다. <불우현집>에서 사헌부의 다시(茶時) 이야기를 썼고 상춘곡을 지었다.
- ③ 5월 20일 명나라 사신에게 석 등잔과 작설차를 줬다.

- (正·副使)에게 차와 인삼만 내리게 했다.
- ④ 장흥고 직장 이사문이 다모와 간종하였는데 그 장모가 원해서 보냈다.
- ⑤ 명나라 사신에게 전다구(煎茶具)와 차, 다시(茶時) 등을 하사했다.
- ⑥ 예겸(1415~1479): 명대 문인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 <예문회집(僉文集)>에 '다방(茶榜)'이라는 글에서 차에 대한 생각을 썼다.
- ⑦ 실전시대(室町時代): 동사(東寺)의 남문 앞에 한 잔에 한 돈 하는 다점(茶店)이 있었다고 했으니 서민들의 차집으로 보인다.
- ⑧ 5월 14일 하인들이 복견궁(伏見宮)의 부에서 온각다회(雲脚茶會)를 배풀었다고 <간문어기(看聞御記)>에 전하고 그림도 있다.
-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

한국	중국	일본
1401 명나라 사신에게 다례를 행함 ①		1401 족리만이 명과 교역하다
정국인(丁克仁)의 출생 ②		1403 동사(東寺) 남문 밖에 서민 다점이 생겼다 ④
1402 명나라 사신에게 작설차를 내림 ⑤		1406 최야(崔野)에 초차가 있었음
대신들이 민주의 집에서 다례를 지냄		⑤ 동산류(東山流)의 다도가 생김
1405 사헌부에서 다시(茶時)를 행함		1417 명나라 사신이 다종(茶鐘)을 가져옴 ⑥
1406 해민국의 다모(茶母) ④		사신의 정·부사에게 차를 주다 ⑨
1407 제사에 술대신 차를 쓰도록 함 ⑤	1407 안남정복 후 고지포정사(交趾布政司)를 둠	1418 다모(茶母) 간종사건 ⑩
1411 다시(茶時)를 행함 ⑥	1409 다공(茶綱)을 신계(申啓)함	1419 명나라 사신에게 차와 다구 하사 ⑧
1416 공중제사에 차만 쓰는 것은 옳지 않다 ①	1415 예겸(僉謙)의 출생 ⑦	
1417 명나라 사신이 다종(茶鐘)을 가져옴 ⑥		
사신의 정·부사에게 차를 주다 ⑨		
1418 다모(茶母) 간종사건 ⑩		
1419 명나라 사신에게 차와 다구 하사 ⑧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시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 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도 6호 - 그림: 35x45cm 액자: 47x64cm
달마도 8호 - 그림: 35x68cm 액자: 47x88cm
달마도 10호 - 그림: 45x75cm 액자: 58x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SHOP 051)806-5587
●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 (정정애)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